

우석대 이원웅 교수, 과학기술 우수논문상 받아

우석대학교 이원웅 약학과장이 6일 서울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제1회 세계한인 과학기술인대회에서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가 수여하는 '제33회 과학기술 우수논문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 상은 국내 395개의 학술 단체가 소속된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에서 지난해 국내 학술지에 발표된 학술 논문 가운데 가장 우수한 논문을 심사해 수상자를 선정하는 국내 과학 기술계의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학술상이다.

한국분석과학회의 추천을 받아 우수논문상을 받게 된 이원웅 약학과장은 가스크로마토그래피-질량분석법을 이용한 속 점유 추출방법 평가라는 논문을 통해 약리작용을 나타내는 후보 물질들에 대한 여러 분석법을 연구·개발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이원웅 약학과장은 "뜻하지 않게 큰 상을 받게 돼 매우 영광이다"며 "앞으로도 관련 연구 수행과 인재 양성에 더욱더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전북대 장혜림 대학원생, 비파괴검사 우수논문상

전북대학교 장혜림 대학원생(메카트로닉스공학·지도교수 강래형)이 비파괴검사학회지에 투고한 논문으로 우수논문상을 수상했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장 대학원생은 강래형 교수의 지도를 받아 김세모 대학원생(메카트로닉스공학), 한태현 교수(원광대)와의 공동 연구를 통해 항공우주 구조물의 대표적인 형상인 원뿔 및 원뿔 구조물에 대한 비파괴 검사 소프트웨어를 개발했다.

특히 개발된 소프트웨어를 적용한 검사 장비를 국내 방위 산업체에 납품해 구조물의 접착 분리 결함을 비파괴적인 방법으로 검사하는 데 큰 기여를 했다.

접착 분리 현상은 두 개 이상의 구조물이 접착제로 결합된 구조에서 내부 접착 상태가 불량한 경우로, 내열성을 담당하는 층이 벗겨져 큰 폭발사고를 유발하거나 힘을 지지하는 층이 제대로 역할을 못하는 현상이 발생하면 큰 인명 사고나 고가 장비의 손실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러나 비파괴적으로 구조물의 내부를 들여다보고 진단하는 데는 그간 매우 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연구진은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특수한 검사 파를 이용해 신호를 취득하고, 신호처리 및 결합 영상 가시화 기술을 접목시켜 숙련된 전문가가 아니라도 이미지 동영상을 통해 결합과 비결합 영역을 쉽게 구분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

한편 이번에 개발된 이 기술은 항공우주, 기계 자동차, 건축 구조물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 활용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은성 기자



“시민이 주인인 공공기관으로 거듭날 것”

전주시설공단, 시민참여 플랫폼 ‘시민참여 혁신단’ 발족

전주시설공단(이사장 구대식)이 창립 15주년을 맞아 시민이 진정한 주인이 되는 공공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시민참여 플랫폼’을 구축했다.

지나온 15년간 공공자민 기관의 관점으로 공단을 운영해 왔다면 앞으로의 15년, 나아가 150년은 수요자인 시민의 관점으로 시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방향으로 공단을 운영해 나가겠다는 구상이다.

공단은 6일 공단 창립 15주년 기념식과 함께 ‘시민참여 혁신단’ 추진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가졌다. 이날 위촉장을 받은 위원은 행정학과 교수와 노무사, 언론인, 체육인 건축학과 교수 변호사 회계사 시민단체 대표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다. 이들은 앞으로 일반 시민 4명을 추가로 영입해 시민참여 혁신단 구성을 마무리 짓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설 예정이다.

시민참여 혁신단은 공공기관의 관점으로 설정돼있는 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을 수요자인 시민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주요 제도의 개선 방안과 혁신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시민참여 플랫폼이다.



‘혁신분과’와 ‘정책분과’, ‘예산분과’ 등 3개 분과로 구성되며, 각각 인사 및 조직 혁신방안, 공모 사업 및 주요 제도 개선 예산사업 전반에 대한 자문과 조정, 여론 수렴의 역할을 하게 된다.

구대식 이사장은 “시민의 일상과 밀접한 우리 공단의 운영 전반에 대해 시민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현안을 해결해 나가겠다”며 “시민 삶의 질을 향상하고, 복리 증진에 기여한다는 공단의 설립 목적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육기 기자



진안군의회 이우라 의원, 진안사랑 장학금 기탁

진안군의회(의장 김민규) 이우라 의원은 6일 진안사랑 장학재단(이사장 전춘성)에 장학금 100만원을 기탁했다.

이우라 의원은 “현재 진안군과 같은 농어촌 지역에 있는 학교는 학생수가 지속적으로 줄어 통폐합 위기에 직면해 있는 상황이다.”며 “지역 인재를 육성하고 잠재된 진안교육을 살리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한다.”며 “앞으로도 진안군의회 의원으로서 진안 교육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전춘성 이사장은 “활발한 의정활동뿐만 아니라 진안의 아이들에게도 관심을 가지고 기부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며 “우리 아이들과 군민 모두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자랑스러운 진안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우라 의원은 진안군의회 최연소 의원 타이틀을 가지고 2022년에 의정활동을 시작했다. 군민과 적극 소통하며 ‘진안군민 누구나 행복할 수 있는 진안발전기’에 앞장서고 있다. /진안=우태만 기자

전주시민축구단 홈경기... 8일 종합운동장서 평택시티즌FC와 격돌

전주시민축구단(이하 전주)은 오는 8일 오후 4시 전주종합운동장에서 2023 K4리그 19라운드 평택시티즌FC와 홈경기를 갖는다고 전했다.

전주는 지난 2일 열린 당진시민축구단과의 원정경기에서 2대 2 무승부를 기록하며, 현재 3승 7무 5패로 11위에 랭크돼 있다.

특히 홈에서 3무 4패로 유독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전주는 이날 승리를 거둬 홈 첫 승과 함께 상위권진입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하겠다는 각오다.

이를 위해 전주는 이번 홈경기에서 선수들의 많은 변화를 통한 전술로 상대의 허를 찌른다는 계획이다.

공격에서 김도현과 용환민, 임재권이 많은 활동량으로 득점을 노리고 중원에서는 양태렬과 이영찬 박광운, 김창수가 일약수비로 상대 공격을 차단한 후 공격에 활력을 불어넣을 전망이다.

또 수비에서는 심원성과 전산해, 장경호가 상대 공격을 무력화시키고, 골문은 최진백이 무실점에 도전한다.



전주시민축구단 양영철 감독은 “이번 홈경기에서는 선수들의 변화가 많이 있을 것이라면서 ‘홈경기인 만큼 많은 골로 팬들께 재미와 즐거움을 드리고 꼭 승리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정은성 기자



부안군산림조합, 조합원 자녀 장학금 수여

부안군산림조합(조합장 오세준)이 6일 청사 대회의실에서 조합원 자녀 장학금 수여식을 진행했다.

부안군산림조합은 학업성적이 우수한 조합원 자녀 28명을 선발해 고등학교 40만원, 대학생 70만원씩 총 1,900만원을 전달하고 격려했다. 부안군산림조합은 매년 조합원 자녀에 장학금을 지원해 조합원들의 경제적 지위향상과 지역인재 육성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오세준 조합장은 “조합원 가정에 경제적으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장학생들이 산림조합 장학생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지역사회를 이끌어갈 인재로 성장해주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비전대 전국지적학과 교수협의회 하계세미나 성료

전주비전대학교(총장 직무대행 우병훈)는 5일 AI뉴테크실에서 2023년도 전국지적학과 교수협의회 하계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적분야 활성화를 위한 지적관련학과의 역할과 과제라는 주제로 전국의 지적학과 교수 뿐만 아니라 한국국토정보공사, 진라북도 토지정보과 및 지적관련 업체에서 총 40여 명이 참석했다.

첫번째 주제발표에서는 신현대학교 이효상 교수가 ‘지적분야 발전을 위한 지적기술자의 역할 활성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했고 토론으로 이어졌다.

이어 ‘공간정보 전문화를 통한 지적분야 재도약’을 주제로 대구과대학교 이영욱 교수가 본교 ‘측지정보과’의 역사를 소개하고 앞으로의 추진 전략을 발표했다.

주제발표 후에는 한국국토정보공사와의 취업관련 간담회도 이어졌다. /정은성 기자

무주교육지원청, 교육가족과 함께하는 교육정책 간담회

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승기)은 서거석 교육감 취임 1주년을 맞이하여 전복교육 대전환 1년 동안 무주교육 주요 현안사항을 보고하고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5일 ‘무주 교육가족과 함께하는 교육정책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황인홍 무주군수, 이태양 무주군의회 의장, 윤정훈 전라북도의회, 단위학교 학부모회장 등 교육가족 60여 명이 참석하여 전복교육 정책 방향과 무주교육 주요 현안에 대해 서로 이해하고 소통하는 시간이 되었다.

주요 현안으로 무주교육지원청은 태권도 특수목적고등학교 설립 등에 대해 무주군청은 장학사업 지원 등을 교육가족에게 안내하였다.

군청과 군의회는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정책 추진에 적극적 지원을 약속하였고, 교육지원청은 현장 맞춤형 교육정책 수립으로 학생 중심의 교육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하였다. 특히 태권도 특수목적고등학교 설립



에 대해 참석자 모두의 공감과 열망을 확인하였다.

무주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승기는 “학생중심 미래교육을 실현하고자 하는 무주 교육정책 추진에 지자체와 의회의 협력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전북의대 군산고 동문회, 김제시에 고향사랑기부금

재계제 전북의대 군산고 동문회가 지난 5일 김제시 고향사랑기부제에 동참하여 고향을 향한 따뜻한 마음을 전달했다.

이날 기부에 동참한 동문회원은 김제 믿음병원 내과 조양동 원장, 응급학과 옥승훈 원장 그리고 김제 오케이의원 이덕형 원장으로 이들은 김제시 고향사랑기부금으로 총 500만원을 기탁했다.

이들은 고향사랑기부제라는 새로운 제도를 통해 고향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특별한 기부를 하게 되어 기쁜 마음으로 동참했다고 전했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고향인 김제를 위해 고향사랑기부제에 적극적으로 관심 가져주시고 동참하여 주신 동문회분들께 감사드립니다.”며 “고향사랑기부금은 고향사랑기부금으로 적립하여 김제 발전과 김제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니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김제=박노태 기자

부안소방서, 소화전 주변 불법 주차차 과태료 부과

부안소방서(서장 박현)는 원활한 소방 활동을 위해 소화전 주변 5m 이내 불법 주차 차량 5대를 과태료 부과했다.

소화전 등 소방용수시설 주변 5m 이내에 차를 주차하면 소방차 출동(진입), 소방활동에 장애를 줘 인명·재산 피해를 일으킬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승용차 8만 원, 승합차 9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불법 주차 차량 신고는 스마트폰으로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해 촬영 시간 1분 간격 이상의 사진 2장을 올리면 간편하게 접수할 수 있다.

박현 소방서장은 “화재 등 비상 상황은 1분 1초가 급박한 상황이다”며 “조금이라도 더 빠른 대응을 위해 응급차량의 접근이 용이 하도록 불법 주차차를 지양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기전대 축구부 1-2학년 대학축구연맹전 본선 진출

전주기전대학교 축구부는 강원도 태백사에서 열린 제18회 1~2학년 대학축구 연맹전 본선에 진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대회에는 65개 팀 3,000여 명이 참가했다. 이에 전주기전대학은 건국대학교, 배재대학교, 남부대학교와 함께 백두대간기 7조에 편성됐다.

이에 따르면 전주기전대학 축구부는 첫 경기에서 우승 후보 건국대학에 3:2로 승리하며 쾌조의 스타트를 보였다. 특히 후반 90분에 터진 양태연의 극강 골은 이번 대회에 대한 전주기전대학 축구부의 투지와 집념을 보여줬다. 이후 두 번째 배재대의 경기를 4:1로 이기며 마지막 남은 남부대 경기 결과와 상관없이 16강 진출을 확정지었다.

이종민 교수(운동재활과는)는 “우리 대학 선수들의 기량과 열정이 어느 팀과 불어든 쉽게 물러서지 않는 근성으로 무척이었다”고 전했다. /정은성 기자

남원시 죽향동발전협의회, 사랑의 삼계탕 전달

남원시 죽향동발전협의회(회장 임진수)는 초복을 맞아 홀몸 어르신 130명에게 건강한 여름나기를 위한 삼계탕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는 협의회원들이 이른 아침부터 삼계탕을 직접 끓여 전달했으며, 음식을 전달하면서 안부를 묻는 등 돌봄과 지원에도 나섰다.

임진수 발전협의회장은 “양 보충이 필요한 홀몸 어르신들에게 직접 조리한 삼계탕을 전해드리며 마음을 전할 수 있어서 보람을 느꼈다”고 전했다.

한편 허인선 죽향동장은 “홀몸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마음과 영양이 가득 담긴 삼계탕 나눔 봉사활동에 정말 감사드립니다”며 “행정에서도 취약계층에 필요한 지원과 관심을 더욱 기울이고 이웃사랑 실천에도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